

# 6세기 신라에서의 왕권과 불교 간의 관계

판카즈 모한 Pankaj Mohan (호주 시드니대학 한국학과 조교수)

## I. 서론

불교가 고대 및 중세 중국과 한국사에서 인생의 여러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불교교리의 보편성이고 다른 하나는 불교에 대한 지배층의 후원이다.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전파된 시기, 즉 기원전 1세기부터 불교가 지배층의 지원 하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치이념을 수정해 나가면서 왕권의 권위확립 및 정당화에 정신적인 바탕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 이래 지배층이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불교가 제시한 여러 상징 즉 ‘轉輪聖王’, ‘菩薩’, ‘彌勒’ 등을 이용하여 그것을 왕실의 중심적인 이념(ideology)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한국사에서 불교가 공식적으로 수용된 후 왕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중앙집권적 통일정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치사업을 정신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정치와 불교 간의 관계의 중국적인 모델(model) 내지 패러다임(paradigm)이 6세기 신라에 전래되어 어떤 형태로 왕권에 예속되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가 위진남북조 시대에 군주정치에 이념적 틀이 됨으로써 이루어진 종교와 국가간의 조화를 살피고자 한다. 둘째 6세기 신라의 사회·정치구조의 변화를 검토하고 眞興王이 중국 ‘국가불교’의 모델을 그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한 점을 다루려고 한다.

## II. 중국의 불교적 왕권의 모델

불교는 기원전후 시기에 중국에 전래되었으나 위진남북조 시대가 도래한 후에야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고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오호16국 시기에 중국의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서로 다른 민족 전통과 필요성에 의해 각기 다른 불교사상체계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는 불교사상의 토착화가 중국 북부와 남부의 두 갈래로 전개될 것을 의미한다.<sup>1)</sup> 북중국에서 중국인의 사회 및 문화 질서의 붕괴는 호족

의 지속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불교의 토착화와 전파를 촉진하였다. 佛圖澄(232-348), 道安(312-385) 등 고승들은 자연재난의 극복과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미래에 대해 예언함으로써 지배층에게 도움이 되었다. 또한 불교는 호족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불교의 기원이 중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위시대의 한 비문을 보면 “우리는 유목민족으로써 문명을 자랑할 수 없다. 오랑캐의 신인 부처(buddha)는 우리가 숭배해야 할 유일한 신이다”<sup>2)</sup>라고 되어 있다. 당시의 불교는 호족의 대중들이 기존의 토속적인 신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교의 재부흥으로 호족의 지배가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컸다.

호족 지배자들은 불교를 크게 지원했는데, 그들의 의식이 유교사상과 대립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천자의 권력유지는 천명에 달려있기 때문에,<sup>3)</sup> 천명사상은 이념적으로 보편성이 결여되었으나 불교의 정치이념과 결합되어 중국의 정치이념은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sup>4)</sup> 북위의 法果는 太祖 道武帝를 ‘當今の 如來’라고 하면서 승려들로 하여금 부처와 같이 禮敬하도록 하였다. 또한 황제들의 모습이 불상의 모델이 되었다.<sup>5)</sup>

한편 남북조시기 중국의 남부지역에 가득 차 있던 정치적 불안은 그 지역의 한인 귀족으로 하여금 정신적인 안식처를 추구하도록 하였는데, 불교가 제시하는 어려운 삶에 관한 원리의식, 즉 보살정신은 그 당시 환경에 알맞았다. 또한 남중국에서는 胡僧들이 드물었을 뿐 아니라, 불교사상의 해석도 산스크리트어를 모르는 중국인 승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토착화된 불교는 중국 특유의 많은 사상을 낳게 되었다. 梁武帝는 중국의 天子思想을 인도의 전륜성왕 이념과 융합하면서 자신을 ‘菩薩天子’로 부각시키는 한편, 천자로서 다른 신자보다 앞서서 불교를 지원하기 위해 捨身까지 했다.<sup>6)</sup> 그러나 남조불교는 慧遠이 주장했던 ‘沙門不敬王者’의 논리를 고수하면서 출세간법과 세간법의 차이를 지켰다.

隋는 북조에서 기원했으나 중국의 영토뿐만 아니라 불교전통도 통일했다. 고유한

---

1) 위진남북조 시대의 불교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들 수 있는 저서는 다음과 같다.  
 湯用彤, 『漢魏西晉南北朝佛教史』(商務印書館, 1938)  
 塚本善隆, 『中國佛教通史』(東京: 春秋社, 1979)  
 橫超慧日 編, 『北魏佛教の研究』(京都: 平樂寺書店, 1970)

2) Quoted in Arthur F. Wright, *Studies in Chinese Buddhism*(1990), 16쪽

3) 金翰奎, 『古代中國的世界秩序研究』(1982), 41-45쪽

4) Tan Chung, “Indian Sources of The Cementing Forces of Chinese Imperial System”, *In X XI International Congress of Human Science in Asia and North America*, (1984), 167-168쪽

5) Kenneth Chen, *Buddhism in China*(1964), 146쪽

6) 彦尙文, 「梁武帝受菩薩戒及捨身同泰寺與‘皇帝菩薩’地位的建立」, 『東方宗教研究』, 43-88쪽  
 方立天, 「梁武帝蕭衍與佛教」, 『世界宗教研究』, 16-33쪽

정치이념을 보완하는 남조계통의 ‘菩薩天子’ 이념을 계승하면서 북위의 불교정책을 선택했다. 隋 이래 불법은 완전히 왕권 아래 종속되었고, 불교사는 황제의 지도하에 전개되게 되었다. 隋 文帝가 ‘用輪王之兵 伸至仁之意 百戰百勝 爲行十善故 以干戈之器 已類香華 玄黃之野 久同淨國’<sup>7)</sup>이라고 선언한 것에서 불교와 왕권,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결합을 살펴볼 수 있다. 『隋書』에 의하면 대업 3년에 중국으로 간 왜국의 사자는 隋의 천자를 ‘海西菩薩’이라고 불렀으며, 『歷代三寶紀』에도 隋 文帝를 ‘菩薩國王’이라고 칭하는 예가 발견된다. 隋 煬帝도 즉위하기 전에 보살계를 받았으며 ‘總持菩薩’이라고 자칭하였다고 되어 있다.<sup>8)</sup>

### Ⅲ. 6세기 신라에서의 불교적인 왕권의 표방

불교가 5세기 초에 신라에 비공식적인 채널로 전래되었지만, 6세기초 法興王 재위(517-539) 때에 국가적 차원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왕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眞興王 시기(540-576)에 접어들면서 왕실에 의한 皇龍寺의 건설, 仁王會 불교의식의 개최, 인도 아소카왕(阿育王) 전설 그리고 ‘金輪’·‘銅輪’과 같은 불교적 용어의 채택 등에서 입증되듯이 불교가 국가차원의 사상과 신앙으로 수용된 것이었다. 그럼 이 시기에 신라 왕실이 제국의 색채가 농후한 轉輪聖王, 즉 천하를 다스리는 불교의 이상적인 왕의 개념을 수용하고 다양한 불교정책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4세기에 이르러 철제농기가 신라에 보급되었으며, 이것은 농경지의 확대 및 잉여생산물의 증가를 가능하게 하였다.<sup>9)</sup> 5세기 말에 이르러 신라는 전국적인 경제의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炤知王 3년(487) 사방에 郵驛을 두고,<sup>10)</sup> 同王 12년에 경주에 시장을 세웠다. 우경과 수리관개사업의 발달은,<sup>11)</sup>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경제적인 성장을 토대로 하여 신라는 기존의 부족적인 사회구조 및 정치체제를 선진 고대국가로 전환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訥祗麻立干 34년(450) 고구려 邊將의 살해로 인해 발생한 신라와 고구려 관계의 긴장은 신라 측의 사과로 일단 완화되었으나, 그 이후 신라는 고구려에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7) 『歷代三寶紀』 卷12. 『大正新修大藏經』 卷49, 107쪽

8) 주홍성, 「新羅佛敎와 政治의 關係」, 『朝鮮學研究』 1, 181쪽  
山崎宏, 『隋唐佛敎の研究』 (1967), 158쪽

9) 全德在, 「新羅州郡制의 成立背景 研究」, 『韓國史論』 22(1990)

10)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王 3年

11) 上書, 新羅本紀4, 智證王 3年, “分命州郡主勸農 始用牛耕.”

노력을 계속하였다. 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는 자주성을 확립했으며, 이것은 고구려와의 마찰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농업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고구려의 남침위기는 기존의 읍락공동체의 관계를 해체시켰고 점차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강화하였다. 6세기는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변화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였다.<sup>12)</sup> 智證王 4년(503)에 ‘新羅’라는 국호가 확정되었는데, 新은 ‘德業日新’을 의미하고 羅는 ‘網羅四方’을 뜻한다.<sup>13)</sup> 신라의 내적인 변화는 왕의 칭호변화로도 표출되었는데, 6세기 초는 麻立干 시대에서 ‘王’으로 바뀌는 시기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中古’라고 구분한 이 시기는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체제가 성립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金氏의 세습이 확립되고, 장자상속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었다. 智證王 6년에 주군이 설치되고, 지방관으로 군주를 돕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치체제가 강화되었다. 3년 후에 東市典의 監, 大舍, 書生 등 관직이 설치되었다. 한편 순장의 금지는,<sup>14)</sup> 신라의 비약적 발전의 시기와 어울리지 않는 부족적인 전통을 수정하고, 선진문화 수용의 바탕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智證王代의 이러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는 법흥왕대에 와서 보다 더 발전하게 된다.

法興王은 그 4년(517) 병부를 설치하고, 5년 株山城을 쌓고, 7년 율령을 반포하여 백관의 공복제를 채택하여 중앙집권제의 제도적 정비를 단행하였다. 병부가 법흥왕 4년에 설치되었으나 병부령은 법흥왕 3년(516)에 이미 임명되었다. 병부령은 병부의 장으로서 ‘內外兵馬使’<sup>15)</sup> 즉 중앙과 지방의 군사권을 관장하였다. 병부령은 법흥왕 때에는 1인이 임명되었지만, 정복사업의 점증에 따라 眞興王 5년에 한 명 더 임명되었다. 비록 법흥왕 7년에 반포된 율령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晉의 泰始令을 모범으로 제정된 고구려의 율령을 개수하였으며, 거기에는 17관등, 골품제도 등에 대한 중요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16)</sup> 율령의 반포로 신라는 종래의 관습법을 지양하고 성문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524년의 「蔚珍鳳坪新羅碑」는 일정한 법적 기준에 입각한 이러한 행정체제를 반영하는 증거가 된다.<sup>17)</sup>

국내의 중앙집권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법흥왕, 진흥왕에 걸쳐 신라는 국제무대에

12) 6세기 신라의 사회적·정치적 발전은 아래 논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盧泰敦, 「三國의 成立과 發展」, 『韓國史』 2(국사편찬위원회, 1977), 147-245쪽

김영하, 『三國時代 王의 統治形態 研究』(고려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2), 195-207쪽

李昊榮, 1985, 『新羅의 三國統合過程 研究』(경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5), 22-46쪽

13)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王 4年

14) 上書, 智證王 3年

15) 上書, 法興王 4年: 同書 卷38, 雜誌7, 官職上

16) 李基白·李基東 共著, 『韓國史講座』 古代篇, (일조각, 1982), 153쪽

17) 李基白, 「蔚珍居伐牟羅碑에 對한 考察」, 『亞細亞文化』 4(1988), 219-238쪽

서도 활약하게 된다. 법흥왕 8년 梁에 사자를 보내었고 다음 해 가야 왕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sup>18)</sup> 527년 異次頓의 순교를 계기로 하여 訥祗麻立干代(417-458) 변방에 들어와 약 백년간 지하에 머물며, 왕실의 개인적인 신앙에 국한되었던 불교는 공인을 받았으며,<sup>19)</sup> 왕권중심의 고대국가로 급격하게 발전되어 가는 신라사회의 사상적인 단결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법흥왕은 불교가 部體制의 사상적인 기반으로 역할을 해 왔던 재래의 무격신앙, 조상숭배신앙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왕권강화를 위한 하나의 초부족적인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불교를 받아들였다.

신라에서의 불교는 고구려를 통하여 전래되었기 때문에, ‘王卽佛’의 북방불교적 색채가 농후하여 왕실의 주도권 밑에서 발전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불교의 보편적인 철학체계는 기존의 무격신앙을 編制하여 보다 고양된 사상체계로 이를 규합하였다. 신라 中古期 전 시대를 통하여 국왕의 권위는 불교로 수식하게 되는데, 그 기원은 법흥왕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유사』와 『해동고승전』의 관련내용을 보면 법흥왕은 왕법과 불법을 일치시키고, 政敎 양면을 주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0)</sup>

(精舍의) 공사를 다 마치자 왕은 왕위를 사양하고 스님이 되어 이름을 法空이라고 하고 의발만 소유하고 법의만을 생각하였다. 뜻과 行은 원대하고 고매하였으며, 일체중생에 대해 자비를 베풀었다. (『海東高僧傳』, 法空)

法興王은 이미 폐지된 불법을 일으켜 절을 세우고 면류관을 버리고 方袍(袈裟)를 입고 관에 있는 왕의 친척을 寺隸로 삼고 몸소 그 절에 기거하여 스스로 弘化에 힘썼다.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 厭觸滅身)

중앙집권제의 정비 및 불교의 정신적인 힘에 바탕을 두고 법흥왕 19년에 김해지방의 金官國을 함락시키고 다시 서쪽으로 진출하여 威安伽倻를 습취하였으며, 신라의 영토를 낙동강으로부터 섬진강에까지 확대시켰다. 법흥왕의 후계자인 진흥왕은 안으로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밖으로 국가의 위신을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국사의 편찬, 사찰의 건설 등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벌어진 쟁패전에 열심히 참여하여 영토를 개척하였다. 진흥왕 시기에 신라는 고령 지방의 대가야를 멸망

18)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1年, “王出巡南境拓地 加耶王國來會.”

19) 신라에서 불교공인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난 사회·경제적인 변화, 즉 部秩序에서 國家秩序로 전환되는 과정을 검토하여, 왕권의 성장과 중앙의 하급관리층 및 外位層의 성립이라는 법흥왕대 정치세력의 변화를 추출하고 그것이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는 요인이라고 이해한 南希叔의 논문이 주목된다. 南希叔, 「新羅 法興王代 佛教受容과 그 主導勢力」 『韓國史論』 25(서울대 국사학과, 1991)

20) 八百谷孝保, 「新羅社會と淨土教」, 『史潮』 7(1937), 162쪽  
崔柄憲, 「新羅佛教의 展開」, 『歷史都市-慶州』 (1984)

시키고 낙동강 유역을 완전히 점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으로 진격하여 진흥왕순수비로 입증된 것처럼 한강하류지역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함경도 마운령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법흥왕대에 ‘建元’이라는 연호와 ‘太王(大王)’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데 이어 진흥왕대에 ‘開國’, ‘太昌’, ‘鴻濟’ 등의 연호를 사용한 것은 이러한 제국 이념의 표현임에 틀림없다.<sup>21)</sup> 승려의 해외유학, 『仁王經』의 강독 등으로 인하여 불교사상에 대한 신라인의 지식이 깊어짐에 따라 진흥왕은 자기의 이념의 표현으로 ‘轉輪聖王’이라는 불교적 수식을 사용했다고 믿어진다.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역사상 전륜성왕의 이념이 어떻게 표방되었는지를 검토하기로 하자.

#### IV. 신라 ‘中古’期에서의 전륜성왕 이념의 표방: 진흥왕의 불교정책

전륜성왕의 이념은 진흥왕 시기에 도입되어,<sup>22)</sup> 정복군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정당화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불교는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는 공생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 전륜성왕 이념은 신라 진흥왕에 의하여 어떻게 실현되었고, 후대 왕들은 이러한 정치이념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가를 살펴보자.

진흥왕은 沙彌 혹은 僧伽를 의미하는 三麥이라는 이름을 가졌고,<sup>23)</sup> 만년에는 삭발하여 스스로 法雲이라는 법명을 짓고 승려가 되었다.<sup>24)</sup> 인도의 아소카왕도 만년에 승의를 입고 출가했다는 전설이 있는데,<sup>25)</sup> 이것은 그가 인도 아소카왕과 마찬가지로 政敎의 양면을 모두 주재하고 군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흥왕이 전륜성왕 이념에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실한 증거로써 그의 두 아들 이름을 전륜성왕의 4가지 형태 중 두 가지인 銅輪과 舍輪(또는 金輪)으로 짓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장자가 三州를 통치하는 銅輪인 것에 비하여 차자는 舍輪(또는 金輪)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sup>26)</sup> 진흥왕이 왕자들의 이름으로 이상적인 전륜

21) 申滢植은 ‘大王’의 칭호가 국내적으로 왕권의 강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국외적으로 중국과 동등함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申滢植, 「三國時代 王의 性格과 地位」, 『韓國 古代史의 新研究』(일조각, 1984), 97쪽)

22) 백제의 성왕도 전륜성왕의 이념에 감명을 받아 사찰 건설에 착수하였다는 주장이 더러 있지만 전륜성왕의 이념은 진흥왕 시기에야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洪潤植, 『韓國佛敎史研究』, (1988), 17쪽에서 법흥왕이 건설한 興輪寺의 ‘輪’이 전륜성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輪王보다 法輪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적 해석으로 볼 때 합당하다.

2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卽位年

24) 上書, 眞興王 37年

25) I-TSTING(義淨, trans by Takakusu), *A Record of Buddhist Religion as Practiced in India and Malays*(Chapter XI), 13쪽

성왕을 채택했던 것은 왕자들이 그의 정신을 계승하여 사방을 정복하고 이상국가를 건설하리라는 희망의 표현이었다.

진흥왕 5년에 興輪寺가 완공되었고, 사람들이 출가하여 승려가 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sup>27)</sup> 한국불교는 인도와 중국의 선진문화를 바탕으로 출현하였으므로 승려들은 부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유교의 정치이념과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가졌다. 출가를 허용함으로써 진흥왕은 국가의 정신적인 발전에 필요한 기초를 다져놓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승려가 됨으로써 지식인으로 존경받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삭발했다고 추정된다. 沙門道人 法藏, 慧忍이 진흥왕을 수반하여 새로 편제된 지역을 巡狩하였을 때 그들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고관 명단의 앞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sup>28)</sup> 그 당시 승려들의 높은 사회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진흥왕 11년에는 불교 통제수단으로 僧官制를 설치하여 安藏法師를 大書省에 임명하였고, 두 사람을 少年書省으로 임명하였다.<sup>29)</sup> 同王 12년 居柒夫와 더불어 고구려에서 온 惠亮法師를 僧統(國統)으로 임명하고 阿尼를 都唯那娘으로 그리고 寶良을 大都唯那로 임명하여,<sup>30)</sup> 僧官制를 정비하였다. 중국 남북조시대에는 중앙의 沙門統 밑에 都唯那가 있었는데 신라의 僧官制는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것을 수용하여, 승려집단 혹은 교단을 국가의 지배체제 밑에 편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진흥왕 10년 梁은 사신과 신라 입학승 覺德을 통해 佛舍利를 보냈으며, 진흥왕은 백관으로 하여금 興輪寺 앞길에서 이를 맞이하도록 하여,<sup>31)</sup> 불법을 열렬하게 믿고 있던 梁과 교류를 맺고 불교를 더욱 더 중흥시켰다.

이처럼 진흥왕은 불교의 제도적인 기초를 정비한 다음 이를 왕권의 강화 및 영토 팽창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惠亮法師로 하여금 百高座法會를 주관하도록 한 것은 왕권의 강화를 불교의 힘에서 얻기 위한 것이었다. 百高座法會는 仁王道場, 또는 仁王般若會라고 하는데 白衣 佛像과 白衣 菩薩像 및 四부와 七衆을 모시고 『仁王般若波羅蜜經』을 설강하는 법회이다. 『仁王經』은 百高座法會를 개최함으로써

26) 『三國史記』眞智王條에서는 진지왕의 이름을 ‘舍輪’이라 하고, 그 주에서 혹은 金輪이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는데, 舍輪은 전륜성왕 가운데 가장 낮은 형태인 鐵輪聖王을 의미하는 것이고, 金輪은 가장 높은 형태인 金輪聖王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27)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5年

28) 許興植, 「摩雲嶺新羅眞興王巡狩碑」, 『韓國金石全文』古代篇(亞細亞文化社, 1984), 39쪽

29) 신라 승관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된다.

李弘植, 「新羅僧官制와 佛教政策의 諸問題」,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教學論文』(1959)

中井眞孝, 「新羅における佛教統制機關について」, 『朝鮮學報』59(1971), 59쪽

李成市, 「新羅中代の國家と佛教」, 『東洋史研究』(1983), 42-43쪽

이주훈, 「新羅僧官制의 成立과 機能」 『釜大史學』(1990), 14쪽

30) 『三國遺事』卷4, 義解, 慈藏定律

31)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0年

내우외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호국정신을 신라인의 마음에 심어주어 정복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sup>32)</sup> 『인왕경』 제2품에는 호국정신을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이 경은 또한 무한한 공덕을 갖고 있으므로 ‘호국공덕’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일체 국왕의 法藥이라고도 부른다. 받들어 행하면 큰 효용이 없을 수 없다. 사택을 지키는 공덕도 일체중생의 몸, 국토를 지키는 성과 같고 참호와 같고 도검과 같다.<sup>33)</sup>

그리고 제5품에는, “가령 나라가 혼란하려 하면 귀신이 먼저 혼란해진다. 귀신이 혼란하기 때문에 즉시 백성이 혼란을 일으켜 도적이 일어나 백성들이 喪亡하며, 국왕, 태자, 백관 등이 서로 是非를 하게 된다”라고 하여 귀신의 많은 眷屬들이 『인왕경』을 듣는다면 국토를 지켜 줄 것이라는 『인왕경』의 효험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sup>34)</sup>

진흥왕 12년에 개최된 仁王會의 역사적 배경을 개관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마도 이 때(진흥왕이 18세 되던 해) 진흥왕이 태후의 섭정에서 벗어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연호를 ‘開國’<sup>35)</sup>이라 한 점이다. 진흥왕 9년에는 고구려가 穢人과 함께 백제의 獨山城을 침공하였는데, 진흥왕은 백제의 구원요청에 응하여 장군 朱玲으로 하여금 강병 3,000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공격을 물리치도록 하였다.<sup>36)</sup> 진흥왕 11년(550) 신라는 백제가 빼앗은 고구려의 道薩城과 고구려가 함락시킨 백제의 金峴을 두 나라 군대가 피로해진 틈을 타서 빼앗아 버렸다.<sup>37)</sup> 또한 仁王會 개최 직전 진흥왕이 居柒夫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침략하도록 하여 10군을 탈취하였다.

전륜성왕의 이념을 들어 호국불교를 주장하는 『인왕경』의 강독은 새로 개척한 지방의 인민에게 충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왕경』의 강독은 신라인의 사상적 단결의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흥왕의 위엄을 높이는 데도 공헌하였다. 같은 해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丹陽赤城碑」에서는 신라의 拓境을 돕고 충성을 바친 也爾次の 공훈을 기리고,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포상을 한다는 내용을 적고 있는데,<sup>38)</sup> 여기에서 천하의 통일을 추구하는 진흥왕의 전륜성왕적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32) 李箕永, 「仁王般若經과 護國佛教」, 『東洋學』 5(1995)

33) 『大正新修大藏經』 卷8, No. 245, 829c쪽

34) 上書, 829c-830c쪽 (李箕永, 上記 論文의 附錄에 原文이 收錄되어 있음)

35)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2年

36) 上書, 眞興王 9年

37) 上書, 眞興王 11年

38) 許興植, 「丹陽新羅赤城碑」, 『韓國金石全文』 古代篇, 33쪽

진흥왕 33년 전사한 병사를 위하여 外寺에 7일간 八關會를 마련하였던 일은, 불교를 통해 재래의 신앙을 포섭하면서 절대적인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한 진흥왕의 불교정책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

진흥왕 14년(553) 왕이 월성 동쪽에 신궁을 지을 때, 그 곳에 황룡이 나타났기 때문에 왕이 이를 불사로 개조하고 이름을 黃龍寺라고 하였다.<sup>39)</sup> ‘黃龍寺’라는 이름 자체가 호국적인 색채를 농후하게 띠고 있다. 한국에는 龍자가 붙은 산과 지명이 많은데, 이 지역들은 어딘가에 샘이나 못이 있어 그 곳에 용이 산다는 전설이 있다. 또 이 곳은 가물었을 때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다. 용은 水物인 동시에 靈物로서 농경에 꼭 필요한 물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명유지의 책임을 맡은 고대 왕들과 같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sup>40)</sup> 鷄龍으로부터 탄생되었던 赫居世王의 王后, 龍城國과 관련이 있는 脫解, 首露夫人이 용궁에서 본 七寶(전륜성왕의 寶石), 자신의 소망대로 죽은 후에 동해의 용이 되었다는 文武王 등의 설화를 통해서 고대신앙에는 용이 왕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용은 수신의 동물적 화신으로 농업을 주관하였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고대사회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왕으로 수식되기도 하였다. 황색과 용이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진흥왕 최초로 건설한 절의 이름을 黃龍寺(皇龍寺)라고 불렀고,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또한 인도의 전설적인 信佛君主인 阿育王이 보낸 金鐵로 南閻浮提의 十六大國, 五百中國, 十千小國, 八萬聚落 모두 鑄成하는 데 실패하였으나, 단지 신라의 진흥왕만이 丈六佛像을 만들 수 있었다는 설화는 신라가 불국토임을 확인하는 한편 신라왕과 아소카왕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이다. 설화에 나오는 바와 같이 丈六佛像의 鑄成은 ‘獨力’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진흥왕은 아소카왕의 파트너요, 후계자로서 부각된 것이다. 불교계가 아소카왕을 부처와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아소카왕이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는 부처의 예언을 선양하였듯이, 6세기 신라의 불교계도 丈六像의 설화로 진흥왕은 바로 전륜성왕이자, 신왕인 아소카왕의 정신을 계승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왕임을 밝히려고 하였던 것이다.

金煥泰 교수는 東竺寺의 ‘東竺’이라는 명칭을 해석하면서, 阿育王이 鑄成하지 못하고 신라의 진흥왕이 완성하였기 때문에 東竺에는 동방의 불국이라는 뜻만이 아니고 동방의 불국인 신라가 서방의 불국(西竺), 곧 인도보다도 더 殊勝한 부처님의 나라라는 자부심 같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sup>41)</sup> 그러나 불경에는 전륜성왕이 閻浮提에서 태어나 閻浮提를 통치한다는 조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 설화는 신라가 閻浮提에 속하는 나라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9) 『三國遺事』 卷3, 塔像, 皇龍寺丈六.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4年

40) 羅喜羅, 앞의 論文, 82쪽. 이은봉, 『韓國古代宗教思想』 (1984), 194-209쪽

41) 金煥泰, 「新羅眞興王의 信佛과 그 思想 研究」, 『新羅佛敎』

## V. 결론

지금까지 중국 위진남북조의 불교를 출발점으로 삼아 6세기 신라에 있어서의 불교적인 정치이념의 표방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인도 문화를 바탕으로 한 불교는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와서 토착화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인의 필요성에 응할 수 있게끔 변질되었다. 남조에서는 고유한 天子思想을 인도의 전륜성왕 이념과 융합시키면서 ‘菩薩天子’의 이념이 출현하였다. 한편 북조의 호족들은 ‘王卽佛’ 사상을 형성하였다. 또한 隋 文帝를 비롯한 수많은 황제들이 자신을 전륜성왕으로 칭하였다.

6세기 신라가 경험한 변화를 살펴보면, 전륜성왕의 이념이 그 시대의 정신과 어울렸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는 커다란 사회·정치적 변화를 경험하여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체제를 성립시켰다. 법흥왕대는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불교의 공인 등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의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통일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진흥왕대는 신라의 영토팽창의 시기였기 때문에 제국이념을 내포하는 전륜성왕 이념의 채택은 고구려, 백제와의 항쟁에 정당성을 제시하는 한편 정복된 지역의 ‘新民’에게 왕의 위엄을 강조하고 민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였다.

아소카王과 진흥왕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으나, 아소카왕 당시의 인도와 진흥왕 당시의 신라가 국가발전의 같은 단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왕의 정치이념에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아소카왕은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인 긴장, 그리고 연속적인 정복사업으로 인하여 어수선해진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적인 조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다르마 이념을 제시하였다. 아소카왕의 法勅을 통해 보면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종교 간의 조화, 생활규범의 원리에 의거한 국민의 충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이 지켜야 할 초부족적·초종교적인 원칙의 제시는 인도 전 지역에 펼쳐진 제국의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으로 여겨진다. 또한 폭력의 포기 및 정법에 입각한 통치를 선언함으로써 사회질서의 회복에 대한 불교의 넓은 사회의식과 보편성에 공감하여 불교를 개인신앙으로 삼고 그 전파를 위해 노력하였다.

신라에서의 불교는 중국문화에 바탕을 두면서 신라에 전래되었기 때문에 다소의 변화를 겪었고, 그러므로 전륜성왕의 이념도 중국의 고유한 사상체계와 융합하여 수정되었다. 원시불교가 강조한 비폭력의 원리가 상실되었고 전륜성왕의 정복군주

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진흥왕은 아소카王과 달리 폭력을 사용하여 영토확장을 추진하였으나 아소카왕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충성과 같은 보편적인 원리를 준수하게 하는 것이 사방정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믿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소카왕이 불교를 믿으면서 자이나교, 아지위카교 등 다른 종교에도 布施를 하듯이 진흥왕도 재래의 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사회적인 조화의 길을 모색하였다.

한편 진흥왕대에 와서 불교는 왕권강화의 역할을 수행한 하나의 정치이념으로서 더욱 발전하였다. 眞平王과 그 왕비의 이름은 석가의 부모 이름을 그대로 취하였다. 그리고 진평왕의 동생 伯飯과 斛飯 등의 이름도 석가모니의 아버지인 淨飯王의 동생 이름인 伯飯(Shuklodana), 斛飯(Dronodana) 등에서 취한 것이었다. 왕권을 석가에 비긴 것은 신라왕실이 전륜성왕 이념을 계승하고, 동시에 ‘王卽佛’ 사상을 확립시키려 한 의도를 증명한다. 불교계에서는 석가를 法王, 출세간계의 전륜성왕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라 왕실은 석가왕실로 상징되었으나 전륜성왕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진흥왕대에 아소카왕으로 상징되었던 왕권이 진평왕대에 와서 석가로 비기어지는 변화는 불경에 나타나는 Kshatriya의 眞種說을 채택하여 ‘스스로의 골품을 불교적으로 성화시키고 있었던 것’<sup>42)</sup>임을 알 수 있다.

진평왕 다음 善德女王代(632-647)와 眞德女王代(647-654)에도 불교는 왕권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 와서 신라불교는 王卽佛 사상에서 보살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전통으로 전환되었으나, Kshatriya 등 왕실을 불교적으로 성화시키는 일이 계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대에도 진흥왕의 정치이념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42) 崔柄憲, 「新羅佛敎의 展開」, 『歷史都市: 慶州』(열화당, 1984), 371-372쪽